

## News

### 우리금융, 배당성향 20%에 딱 맞췄다…올해엔 배당확대 예고

헤럴드경제

우리금융지주는 보통주 1주당 360원의 2020년 결산배당을 결정. 보통주 배당금 총액은 26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1조3073억원)으로 나눈 배당 성향은 20% 또한 향후 배당 확대 위해 자회사 및 지주 이익잉여금도 활용하기로 결정.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결의하면서 자본준비금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배당에 사용할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통일한다…심사 투명화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논의에 착수 TF에서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고 신청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 문의라지만 부담되네.. 이재명 '기본대출' 논란

이데일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주요 은행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오던 기본대출 상품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논란 청년층이나 결혼적령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인당 500~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기본금융 상품을 은행권이 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

### "개인별 DSR 40% 규제 단계적 확대"

한국경제

금융위원회는 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개인별 DSR 도입 스케줄 수립. 전체 차주별 DSR 40% 적용을 갑자기 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풀이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까지 포함해 금융권에서 얻은 대출 전체의 원리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 차보험 흑자구간 진입?…주요 4사 누적손해율 82% 안팎

연합뉴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 4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6~82.0%로 잠정 집계돼 안정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지 않을 전망 2월만 놓고 보면 손해율이 흑자 구간에 근접. 이에 2월까지 누적 손해율도 81.7~82.8%로 안정세 기록. 그러나 정비요금과 한방 진료비 등이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변수

### 5년치 올리고 나이 따라 가중… 舊 실손보험료 '2배' 뛴다

파이낸셜뉴스

4월 '구(舊)실손보험'의 보험료가 20% 가까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결정됐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오는 4월 구실손보험료를 7~19% 가량 인상할 예정 구실손보험료의 인상은 구실손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누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

### 보험유지율 92%…토스의 '정규직 실험' 안착

한국경제

정규직으로만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 토스인슈어런스의 '1년 이상 보험유지율'이 92% 기록하며 보험업계 평균 83% 상회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해부터 보험상품 판매 수당 없이 월급만 지급. 실적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용 방식 덕분에 보험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기가 보다 유리

### 금감원, 옵티머스 투자자에 '전액반환' 권고 유력…내달 분조위

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사례가 될 전망 3월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